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3월 28일(주일) 제1337호



‘생명을 위한 고난’

3월 29일~4월 3일 오전 6시 ‘2021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 CGNTV 및 유튜브 생중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아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시작된다. 2021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이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오전 6시에 열린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생중계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허용하는 인원은 예배당 예배로 참석할 수 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에서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낙태반대 및 생명수호운동)와 한국로잔위원회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전한다. 3월 29일(월) 박상은 박사(생명원미선원장,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명의 행렬’, 30일(화) 김현철 목사(사 프로라이프 고문) ‘생명의 소리’, 31일(수) 이종락 목사(주사랑 공동체교회), 4월 1일(목) 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2일(금)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3일(토)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이재훈 목사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경시 현상은 사단의 영향력 확산으로 발생했다”면서 “사단의 영적 흐름을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에 의지해서 끊어내도록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3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진행된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

도회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가 막을 내렸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에는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원로),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 유병국 선교사(WEC 국제선교동원),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원로),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이재훈 담임목사 등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90일의 기적’ 마지막 일주일!

4월 3일까지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생명나눔(헌혈)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온누리 와 함께하는 ‘90일의 기적’이 이제 일주일 남았다. 4월 3일까지 이어진다.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다. <관련기사 2-4면>

90일의 기적은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가 주축이다.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CGNTV, 예배당 예배로 참가할 수 있다.

예배당에는 코로나19 방역수칙 허용하는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실시간 영상예배로 참가하는 인원이 1만 명을 넘는다. 유튜브 6천 명, CGNTV 4천 명 정도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하루

평균 2만 회 이상이다. 전 세계에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시청하고 있다.

성경일독은 90일 동안 매일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거나 ‘90일 공동체 성경읽기’ 유튜브 영상이나 팟캐스트를 시청하면서 성경을 완독하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3월 25일 기준으로 온누리교회 성도 848명이 참가했다.

한편 4월 5일(월)부터는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동일하게 오전 6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시 30분에 새벽기도회를 진행한다.

/ 정현주 기자

CGNTV 개국 16주년 기념 행사

4월 4일 찾아가는 풍당 설명회
4월 15일까지 풍당 이벤트

CGNTV가 3월 29일 개국 16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해 4월 4일에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기독교 OTT 플랫폼 ‘풍당’ (이하 풍당)에 대한 안내와 설명회를 진행한다. 더불어 ‘풍당 클래스’와 ‘풍당 SNS’ 이벤트를 4월 15일(목)까지 실시한다.

‘풍당 클래스’ 이벤트는 풍당 이벤트 클래스에서 세 가지 콘텐츠를 시청하고 수강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풍당 SNS’ 이벤트는 풍당을 시청하고 있는 페이지를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복음에빠지다풍당’, ‘#기독교OTT풍당’을 태그해서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한편 CGNTV는 4월 4일 오전 10시 30분 특집다큐멘터리 ‘컴백, 흠’을 방송한다. 다큐멘터리 ‘컴백, 흠’은 은퇴한 여성 선교사 세 명이 북한 한옥마을에서 2주 동안 동거하면서 은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장면을 담았다. 인도, 홍콩, 몽골에서 사역한 여성 선교사 세 명이 출연한다. 문의: 02-796-9800

/ 김영선 기자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모두 하나님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충균, 정유정, 김선민 성도의 90일의 기적 러닝메이트



정충균 성도(중종로공동체, 왼쪽 위), 정유정 순장(하모니공동체, 왼쪽 아래), 김선민 순장(서초D공동체, 오른쪽)이 응원하고 격려해주는 러닝메이트들 덕분에 90일의 기적 은혜가 더욱 풍성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1월 4일 시작된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 완주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90일은 너무 길지 않나?”,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와 달리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경주를 완주하고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한결같이 서로를 응원해주는 러닝메이트 덕분이다.

정충균 성도(중종로공동체)는 이른 출근과 늦은 퇴근 때문에 90일의 기적을 완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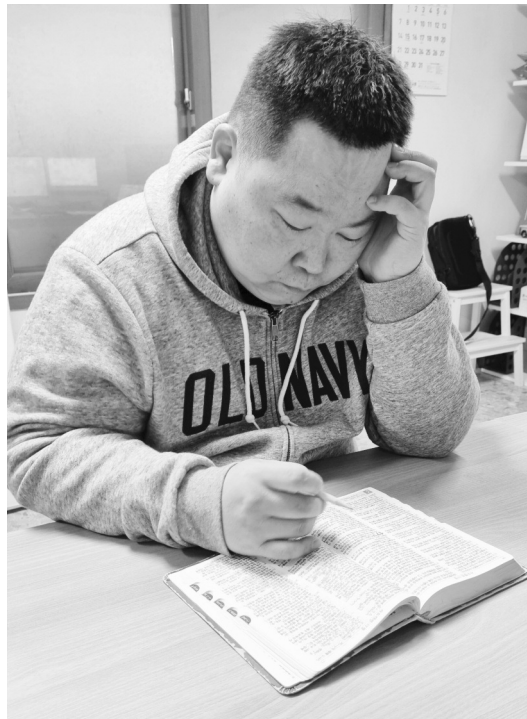
“저는 복합쇼핑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출근이 빠르고 퇴근도 늦은 편이라 매일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고 성경일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족들과 소망8순 순장님과 순원들 덕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주를 앞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정충균 성도가 지칠 때마다 독려해주고,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고 있는 순장과 순원들, 가족들의 응원이 그가 90일의 기적을 완주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다.

“저희 순장님과 순원들을 자랑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잘 정리해서 나눠주는 것도 고마운데 응원까지 해주십니다. ‘힘내자!’는 격려를 들으면 저도 모르게 힘이 샘솟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고 있는 가족들의 응원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유정 순장(하모니공동체)은 이전보다 더 준비된 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90일의 기적에 참가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순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겪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순이 막 개편되어서 순장님이나 순원들과 관계 형성이 되기도 전에 온라인으로만 만나니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올해는 새로운 순장으로서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90일의 기적에 참가했습니다. 오프라인 순예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순예배는 준비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90일의 기적에 함께 하면서 영적으로 채워주시니 더 은혜로운 순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유정 순장이 더 나은 순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준 숨은 공로자가 있다. 정유정 순장의 두 딸이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어폰을 꽂고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큰딸이 ‘엄마, 이어폰 빼고 우리도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 드려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두 딸과 함께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벽기도회에 참가한 추억이 또 생겨서 정말 좋습니다. 또 새벽잠이 많은 제가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를 완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김선민 순장(서초D공동체)은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공동체 단체채팅방을 열심히 관리한다. 공동체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다. 김선민 순장이 열렬히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서초D공동체 순원들이 정말 열심히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구심점 역할을 해주시는 장로님입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단체채팅방에 공동체 대표장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믿음의 선배님이 함께 계신 덕분에 매일 ‘한 줄 소감’ 나누는 일이 더욱 활발해지고, 깊이도 깊어지더라고요. 장로님 덕분에 우리 공동체 단체채팅방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받은 은혜가 또 있다. 김선민 순장은 아침부터 밤까지 단체채팅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순원들의 ‘한 줄 소감’을 보면서 이중삼중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

“어떤 순원은 아침에 한 줄 소감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순원은 밤늦게 올리기도 해서 하루 종일 공동체 단체채팅방 나눔이 끊이지 않습니다. 순원들이 올린 한 줄 소감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저도 그날 말씀을 이중삼중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공동체 성도님들이 다 함께 90일의 기적에 참가한 덕분에 완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니까요.”

/ 정형주, 김영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3월 17일~23일)

· 중증병자의 친구들의 믿음! 공동체가 같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 중요하지 깨닫는 요즘이다. 다시금 공동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 차정선 집사(경기A공동체)

· 자신의 소유에 주목하며 열심히 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되 그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저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이 제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저에게 평강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선예원 자매(대전 온누리교회)

·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길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주님께 내어드린 어린 아이같은 믿음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90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하은진 집사(중종로공동체)

· 어려운 길, 좁은 길을 가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습관을 연습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 박복연 성도(분당B공동체)

· 평안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 김도환(서초C공동체)

· 예수님의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 저희는 그 사랑을 먹고 삽니다.
/ 오윤미 성도(이수공동체)

·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

이다”라는 말씀처럼 내 마음에 종일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 이충원 성도(강남E공동체)

·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환자분들과 보호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 이춘주 권사(여의도공동체)

·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꺾져가는 심지도 고치지 않으시는 주님. 제가 주님과 거리가 먼 곳에서 있어 시들거리고, 꺾져가고 있더라도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달려와 맞아주시고, 결국에 자녀된 권세로 회복시켜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 김가영 성도(무공동체)

· 초신자 때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는 주님께 배운대로 먼저 그 집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 습관이 희미해지고 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 정경혜 성도(분당B공동체)

· 내가 왜 기도만 하면 우는지, 주님을 부르면 눈물이 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값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습니다.
/ 이승대 권사(서빙고공동체)

·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 뿔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의 믿음을 보면서 눈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 박종순 집사(관악금천공동체)

· 거짓 증언들에도 침묵하셨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 최민영(강남D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신앙 선배들의 진짜 본보기!

김미수 집사, 백인호 성도, 양기영·김숙자 집사 부부의 헌혈기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이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다. 아름답게 매듭짓기 위해 더 많은 성도들이 헌혈의 집으로 달려가고 있다. 3월 25일 기준 848명의 성도들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에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의 여정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생애 첫 헌혈을 한 성도, 헌혈의 집을 찾아 먼 길을 달려간 성도, 온 가족이 함께 헌혈한 성도, 여러 번 생명나눔을 실천한 성도, 빛진 생명을 갚기 위해 헌혈한 성도 등 귀한 간증과 고백이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눈길을 사로잡는 성도들의 사연이 있다. 신앙의 선배로서 진짜 모범을 보여준 고령 성도들의 이야기다.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생활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준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 김미수 집사(60세, 서산 온누리교회), 백인호 성도(62세, 인천 온누리교회), 양기영 성도, 김숙자 집사 부부(63세, 인천 온누리교회)가 그 주인공이다.

헌혈에는 나이 제한이 있다. 처음 시도하는 사람이라면 65세까지, 꾸준히 실천해 온 사람이라면 69세까지 할 수 있다. 김미수 집사도 얼마 남지 않은 헌혈 기회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어서 서산에서 서울에 있는 헌혈의 집을 찾았다.

“서산에는 헌혈의 집이 없고 한 달에 한 번 헌혈차가 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소식을 듣고 너무 참가하고 싶었는데 헌혈차 오는 날과 시간을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생명나눔의 기적이 끝나기 전에 꼭 참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기회만 엿봤습니다. 지난주에 딸을 만나려고 서울에 올 일이 생겼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제 눈에 헌혈의 집 간판들만 보이더라고요. 이때다 싶었습니다.”

헌혈의 집 앞까지는 갔는데 문을 두드리기가 어려웠다. 나이 때문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용기내서 문을 두드렸다.

“문 앞에 서니까 ‘내가 들어가도 되나?’, ‘나이가 있어서 혈액이 안 좋은 게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문 앞에서 몇 분을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헌혈의 집까지 오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검사 끝에 69세까지

헌혈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헌혈할 수 있다는 말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헌혈을 마치고는 곧장 순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후기를 남겼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두 달에 한 번씩 헌혈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헌혈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헌혈을 마치고는 너무 기뻐서 순 단체대화방에 사진과 후기를 남겼습니다. 순원들이 제 사진을 보더니 다들 얼른 동참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두 달에 한 번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건강관리를 잘해서 69세까지 계속 동참할 것입니다.”

백인호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기 위해 20여 년 만에 아내와 함께 헌혈의 집을 찾았다. 헌혈 불가 판정을 받고 한 달을 기다렸다. 기다림 끝에 마침내 헌혈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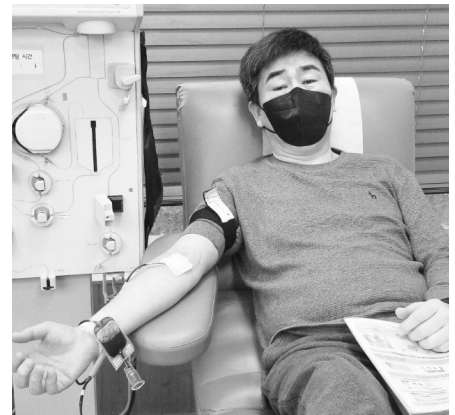
“30대 후반까지 헌혈을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치가 높아서 더이상 헌혈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20년 넘게 헌혈을 잊고 살았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와 함께 헌혈의 집을 방문했는데 헌혈 불가 판정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쉽게도 그날은 아내만 헌혈하고, 저는 피검사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피검사 결과에서 C형간염이 없어져서 헌혈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헌혈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헌혈을 60대가 되어서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일 년에 한 번은 헌혈하기로 하나님과 약속도 했다.

“하나님께서 헌혈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 것 같습니다. 건강문제로 늘 고민이 많았는데 생명나눔의 기적을 통해 제 건강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않고 힘 닿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일 년에 한 번은 헌혈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백인호 성도가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를 망설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마련해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큰 기쁨을 누릴 수



신앙의 선배로서 진짜 본보기기를 보여준 김미수 집사(서산 온누리교회), 백인호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양기영·김숙자 집사 부부(인천 온누리교회).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

있는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귀한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양기영 성도, 김숙자 집사 부부는 63세 동갑내기다. 말쑥에 순종하고픈 마음으로 두 손 꼭 잡고 헌혈의 집을 방문했다. 김숙자 집사에게는 생애 첫 헌혈이었다.

“젊을 때 몸무게가 미달이어서 헌혈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헌혈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살고 있었는데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나이가 많고 건강도 걱정되어 며칠을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남편과 함께 헌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60세가 넘어 생애 첫 헌혈을 했습니다.”

양기영 성도는 아내와 함께 헌혈할 수 있어 더욱 기뻐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내와 함께 꾸준히 헌혈하겠다고 다짐했다.

“저도 헌혈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오랜만에 헌혈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데,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행복하더라고요.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고, 피를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사랑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내와 함께 이 행복을 계속 나눌 생각입니다.”

김숙자 집사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됐다.

“헌혈은 영혼을 더욱 사랑하는 일 같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기억하면 내 피를 나누는 일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와 생명을 나눈다고 생각하니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참사랑을 배우는 기회입니다.”

양기영 성도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헌혈은 고민하면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대로 흘러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기회입니다. 헌혈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헌혈하면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헌혈의 집을 방문해 주십시오. 크고 깊은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나쁜 통화가 좋은 통화를 내쫓는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시대에 재정 고문관이었던 토마스 그레샴이 여왕에게 드린 서한에 담긴 내용입니다. 당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자 여왕이 실제 가치와 명목 가치가 동일한 은화만 유통하지 않고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동화까지 함께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은화가 점점 자취를 감춰버리고 가치가 떨어지는 동화만 유통되면서 결국 화폐량이 또 다시 줄게 되고, 경제가 또다시 악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레샴의 법칙(Gresham’s Law)’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치를 평준화시키려고 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정직하고 의롭고 선량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도태되고, 능력 없으면서 진실하지 못하면서, 부정을 일삼으면서도 자기를 포장하고, 정치적인 술수로 자리를 차지하고 득세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현상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은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능수능란한 사람들이 교권을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함으로 교회 전체 권위가 떨어지고 영향력이 약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개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다가도 한 순간에 추락하고,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교회가 가졌던 문제와 갈등도 그 현상이었습니다. 겸손과 은유, 진실한 태도, 희생적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바울을 거짓되고 무능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모습이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적절합니다. 바울은 몰라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세워주신 교회이며, 장차 유럽 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 소중한 교회가 거짓된 무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과 싸워야 했

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책망하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교훈하기 위해 쓴 책이 고린도후서입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싸움에서는 순결해서만 안되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사람들에게 좀처럼 말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사회적 이력이나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공격하면서 바울이 믿을 수 없는 사람, 실력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속이는 사람으로 매도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으로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지 않았다고 공격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추천서에 대한 이슈가 나옵니다. 유대로부터 온 거짓된 무리는 아마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당시는 개인의 이력서보다 저명한 사람의 추천서가 더 인정받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도 없는 바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과 동등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어눌한 것도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로마서와 같은 서신을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변이 어눌했습니다. 또 바울이 여행계획을 변경했더니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가지고도 ‘사익을 취하는 위선자’라고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특이한 체험이 없는 사람이라고도 공격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바울이 참다못해 자신의 체험을 고백합니다. 14년 전 바울이 셋째 하늘을 체험했습니다. ‘셋째 하늘’은 우리에게 예비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14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말하는 순간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위대해지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할까 봐 침묵한 것입니다. 그 체험

을 고난을 참는 인내의 자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거짓으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셋째 하늘을 본 체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실력 없고, 주님이 부르지도 않고, 위선적이고, 속이는 사람으로 매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는 악하고 거짓된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부득불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기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과 대적자들의 ‘자랑 대결’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1절).

“내가 다시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들여 나로 하여금 조금 자랑하게 하십시오”(16절).

“우리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내가 욕을 하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감히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자랑 좀 하겠습니다”(21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30절, 개역개정).

어리석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이들의 거짓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그들을 따라가는 고린도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주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도 그와 같이 돼 버린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 대답해 보아라. 아마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 것이다”(잠 26:4-5).

바울이 대적자들과 자랑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부자는 자기 부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하는 사람은 오직 이것을 자랑하게 하라. 곧 그가 나를 깨달아 내가 이 땅에 인애와 정의와 의로움을 행하는 여호와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게 하라. 이것들을 내가 기뻐한다. 여호와의 말이다’”(렐 9:23-24).

바울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17절).

바울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대로

첫째,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 안에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13절).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영역에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16절).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14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분량대로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량’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합의된 사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언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한 다른 문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가 능통한 바울은 헬라어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과도 합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디모데, 디도 같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구획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분량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영적 권위는 바울에게 있습니다. 유대에서 와서 고린도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14면에 계속)**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립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크리스천의 역할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무력제압에 의한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기관총을 발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학살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 크리스천의 역할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그들을 살리기 때문이다.

한국아세안친선협회(KAFA: Korea-ASEAN Friendship Association)에서 미얀마 학원 선교를 위한 대학설립에 동참하고 있는 남명현 장로(2000선교 선교분과위원)가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배경에 대한 글과 기도문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남명현 장로
(2000선교 선교분과
위원)

미얀마는 우리나라만큼이나 긴 역사가 있다. 미얀마는 공식적으로 135개 종족이 있는데, 언어 기준으로 분류하면 약 225개 종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오랜 종족 간의 전쟁에서 버마족이 주류 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종족, 종교 간의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미얀마(당시 버마)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 식민지에서 독립했다. 그런데 소수 종족들의 자치권 보장 요구에 따른 혼란을 틈타 1962년 군부가 집권했다. 그 이후 약 50년 동안 군부 독재가 계속되어왔다.

2008년 헌법 제정 2년 후 선거가 이루어졌고, 그 이듬해 문민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아웅산 수지 여사의 총선 참여 금지, 국회의원 수의 1/4의 군부 할당 및 군부의 군 통수권 관할 등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문민 정부 출범 이후에도 소수민족들의 무장 분리 독립운동이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로힝아족을 포함한 일부 종족 및 종교집단과 정부군과의 과격한 충돌이 지속되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영혼들을 위해 1813년 미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을 보내셨다. 그는 15년 동안 버마 왕실에 복음을 전하려 노력했는데 전도의 문이 막히자 1828년 카렌족 선교에 나섰다.

아도니람 저드슨은 자립, 자치, 자전을 목표로 74개 교회를 개척했고, 12개 학교를 설립했다. 114명의 현지인 설교자를 세웠다. 약 8,000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약 5백만 페이지의 책을 저술했다. 이후 수많은 선교사를 통해 카렌족 외에도 까친족과 친족 등이 복음화되었다. 현재 미얀마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이 소수종

족이다. 미얀마 인구 중에서 5%에 이른다. 군부 독재 시절 미얀마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가 많지 않았는데 문민정부 이후 많이 늘어났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 2유닛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2015년 두 번째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은 2020년 11월 미얀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전체 의석의 60%를 차지했다. 국민민주

연맹은 전체 의석의 25%를 군부에 배정하는 헌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군부 세력 약화를 시도했다. 이에 군부는 2020년 총선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을 핑계로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 다시 집권했다.

미얀마는 풍부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과거 50년 군부 독재 기간 국제적 비난에 따른 폐쇄적 사회주의 체제로 경제가 파탄났고, 자유는 제한되었으며, 국민들은 많은 억압을 받았다. 자유를 향한 국민적 저항에 군부는 폭력으로 맞섰고, 반대파 투옥과 강제 노역이 다반사였다. 특정 소수 집단을 향한 폭력 정책으로 마을이 파괴되고 강간, 고문, 강제이주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최근 문제가 된 로힝아족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박해도 극심하다. 1966년에는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3,000개가 넘는 기독교 마을이 파괴되었다. 복음화된 카렌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해외 난민으로 살고 있다. 카친족은 정부군과 내전 상태에 있다.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전역에서 일어난 국민적 저항에는 더이상 과거 군부 독재 시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국민적 열망이 담겨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자유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강력한 소망에 뿌리내린 절규다.

미얀마를 위한 기도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와 그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대립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 생명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더 이상의 소중한 인명이 살상되는 유혈상태를 막아주소서.

군부와 임시정부 양측의 날카로운 대립으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그 땅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을 친히 찾아오셔서 선량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 권력의 욕망을 파하시고 국민들의 생명을 사랑하는 하늘 권세가 임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는 과거 군부 독재 50년 동안 그 땅에 자유 민주주의가 말살되어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까지 허락하셨는데 군부가 다시 집권하면 자유는 더이상 허용되지 않는 지옥과 같은 상

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자유가 없어져 경제와 사회가 파탄났던 암울한 역사가 다시 시작되지 않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따라 자유를 사랑하는 그 땅의 영혼들이 참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얀마 영혼을 사랑하셔서 세우신 교회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부는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를 쫓아냈으며 기독교 마을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군부가 다시 권력을 잡게 되면 미얀마의 교회도 더 큰 고통 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굶어 살피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이 세상 권세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올려 드

리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 되어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 이겨내고, 장차 허락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땅을 향한 새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에는 수많은 민족과 종교집단, 정치 및 사회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이유로 갈등과 대립의 역사를 써 내려왔습니다. 미얀마에 뿌리내린 분열의 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종교, 인종과 파벌 속에 존재하는 대립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사라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교회들이 교단과 종파의 차이를 넘어 주 안에서 연합하게 하셔서 갈등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주역으로 세워주옵소서. 이를 통해 그 땅의 모든 민족, 모든 집단이 주 안에서 화합을 이루도록 해주시고, 연합을 이룰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진정한 평화가 그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소망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고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고국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미얀마가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서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를 반대하며 국민과 임시정부(CRPH) 지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전 세계에 세워진 수많은 미얀마 교회들과 전 세계의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와 기독교 단체들이 미얀마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을 굶어살피시고,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의 소망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1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주셨던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생명과 자유가 존중받으며,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미얀마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1. 입양이 복음이다 2. 행복한 우리집 3. 선한울타리사역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선한 울타리’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 첫 발을 내딛다!

사회선교부에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선한울타리사역’을 시작했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을 퇴소해서 자립해야 하는 아동을 말한다. 대학 진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호 연장이 되지 않는 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자립을 해야만 한다. 매년 약 26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정착금(500만원 가량, 지자체마다 다름)을 받고 쫓겨나듯 시설 밖 세상으로 떠밀린다.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나온 보호종료아동의 삶이 어떨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2019년)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4명 중에서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다. 보호종료아동의 고단하고 팍팍한 삶을 여실히 알 수 있다.

사회선교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선한울타리사역은 시설 밖으로 내몰린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 지원 사역이다. 그 첫걸음으로 용산구 보광동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1호 울타리를 마련했다. 여성 보호종료아동 두 명이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다. 선한울타리사역 첫 번째 주인공인 K자매를 선한울타리사역 첫 예배에서 만났다. K자매는 “오갈 데 없는 나에게 제2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온누리교회에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오갈 데 없는 K자매에게 보금자리가 생겼다

K자매(22세, 대학교 3학년)가 보육원에 들어간 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였다. 어린 동



제이홈 봉사자들이 여성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선한울타리에 들어갈 가구를 조립하고 있다.

생 세 명과 함께 들어갔다. 부모의 폭력과 학대 때문이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느낄 정도로 심각한 학대를 당했다.

“낮에는 엄마한테 맞고, 밤에는 아빠한테 맞았어요. 하도 맞아서 ‘이렇게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하루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일로 부모님이 상담기관에 연계됐는데, 상담사님이 부모가 위험한 게 아니라 아이들 네 명이 더 큰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저희를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정말이지 날마다 지옥 같은 집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하루아침에 낯선 곳(보육원)에서 생활하게 된 K자매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다. 정말 다행히 보육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안정을 되찾았다.

“보육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 있어도 죽고, 보육원에 가도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선생님들이 진짜 좋은 어른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죽도록 때리는 부모만 보던 K자매에게 보육원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천사 같았다. K자매에게는 그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보육원이 진짜 집이자 고향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보호종료가 돼서 보육원을 퇴소하면 자유가 생긴다고 좋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설에서 지내는 것만큼 안락한 생활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시설을 퇴소하면 누가 저에게 때 되면 밥 주고, 옷 사주고, 챙겨주겠어요?”

사실 K자매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호 연장이 되어서 보육원에서 생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다.

“대학교 졸업하고 보육원을 퇴소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겨울 갑자기 퇴소 통보를 받았어요. 정말 당황했어요. 보육원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다행히 온누리교회 선한울타리사역과 연결되었다. 오갈 데 없던 K자매에게 보금자리가 생겼다.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선한울타리사역 덕분에 저에게도 보금자리가 생겼어요.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돌아올 곳은 여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자매가 온누리교회 사회선교부에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오갈 데 없는 저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저보다 상황이 열악한 친구들이 많은데 저만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서 미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보다 사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오창화 집사(제이홈 팀장)는 “많은 성도님들이 선한울타리사역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목회칼럼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본부장)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혹은 이방인이다. 하나님은 “너희 성에 사는 몫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도록 하라”(신 14:29)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방 사람이나 고아에게 억울한 일이 없게 하고 과부에게서 그 겹옷을 담보물로 잡지 마라”(신 24:17)고 강조하셨다. 추수하고 남은 곡식을 이방 사람과 고아를 위해 남겨두라는 당부도 하셨다(신 24:19-22). 시편 기자는 “그의 거룩

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시 68:5)며 하나님의 생각을 밝혀주었다.

하나님이 그들(고아와 과부, 이방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부모나 남편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행히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과 고통을 잘 알고 계신다.

한국 사회에서는 고아원보다는 ‘보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과거에는 전쟁과 가난 때문에 고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시설에 위탁된 고아 아닌 고아들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지내던 아이들이 시설을 떠나야 한다. 이들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부른다. 보호종료아동은 소정의 지원금을 가지고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지원금으

“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로 월세방을 계약하고 나면 그때부터 생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야 월세를 낼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찾는다고 해도 보증서 줄 보호자가 없어서 취직하는 게 너무 어렵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이들이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야 하는 환경이 얼마나 낯설고 어렵겠는가? 넓은 세상에 보호막 없는 상태로 홀로 살아야 한다는 것과 익숙한 공동체(보육원) 생활 방식을 벗어나 혼자 생활해야 하는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중에는 처음 직면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꽤 있다.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과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사역을 허락하셨다. 사회선교

부 제이홈(입양 네트워크)이 주관해서 시작한 ‘선한울타리사역’이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시설과 사회의 중간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선한 울타리가 되어 준다. 먼저 여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숙소(울타리)를 마련했다. 추후 남자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숙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한울타리사역이 마련한 울타리에서 생활하게 될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버림받은 존재라는 자아의식 때문에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다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려워 아예 사람을 사귀는 일을 꺼리기도 한다.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주님과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선한울타리사역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법(divine law)을 주셨다. 칼 헨리는 “하나님은 유일한 법률의 제정자이다. 세상의 통치자와 입법기관들은 모든 종교적, 윤리적, 법적 의무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

에 자신의 행한 일과 입장을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대하 20:6, 행 17:24~31). 그가 요약한 성경 구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영역이 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분야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이 나 상대주의 세계관이 고안해 낸 인간중심의 법률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때 절대적인 법체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마음에 새겨두신 것 즉,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에 누구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는 개인의 양심(일반계시)이라는 기준을 주셨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통해 주신 율법(특별계시)이라는 계약법 조문을 통해 지킬 때의 축복과 지키지 못할 때의 저주를 명확하게 계시하셨다. 구약의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계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칼빈은 그 율법을 도덕

법, 재판법, 의식법으로 분류하였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적이고 영속적인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법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법의 정신을 깨달아 지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러셀 커크는 “법을 그 윤리의 원천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법 지배에 끔찍한 타격을 입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신론적 인본주의자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윤리나 법이 없으며, 시대가 변화에 따라 윤리와 법도 변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기준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성윤리의 기준이 되는 기독교나 유교적 윤리의 도덕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개방적 성관계와 피임만 강조하는 성교육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의 불꽃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나타낸다. 포르노에서 본 것을 그대로 흉내 내다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성범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도덕적 기준의 유지를 통해 자제하게 함으로써 성범죄를 예방하는 방향이 아니라 도덕적 기준은 아

예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두었다가 죄를 저지른 후에는 무참하게 처벌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도로에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도덕에 해당하는 차선과 법에 해당하는 중앙분리대나 가드레일이 있다. 법을 어기고 중앙선을 넘어서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치거나 길 밖으로 벗어나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위협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나 강철로 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다. 또 도로에서는 가급적 차선을 지키며 운전하는 것이 교통 흐름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주변을 잘 살펴며 차선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개인의 특별한 필요에 부응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성윤리를 지켜 자제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모든 자유를 허용하다가 그 결과로 발생한 성범죄는 무자비하게 처벌한다. 또 무제한의 성적인 자유를 부여하고 그 결과로 생긴 태아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다가 영아 유거나 무책임한 육아,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차선 없는 도로를 마음대로 달리게 하다가 갑자기 강철이나 콘크리트로 차선을 만들어서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법만 강화하는 것은 범법자만 양산하는 끔찍한 법의 지배를 촉발한다. 그 전

에 도덕률을 잘 지키게 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다.

리처드 도킨스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런던의 시내버스 외부에 “아마 하나님은 없을 걸 그러니 이제 걱정은 그만하고 인생을 즐겨”라는 광고를 붙인 무신론 버스캠페인을 벌이면서 ‘하나님은 백해무익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던 그가 2019년 영국 신문 ‘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인간의 양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절대자를 삭제한 결과 사람들은 나쁜 짓을 더 쉽게 하게 되었다”라고 개탄하였다. 절대자와 도덕률이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무신론자의 고백이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도덕률을 지킴으로써 죄와 거리를 두어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신다. 가까이 가면 물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경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미 6:8)를 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 것(나 1:3)을 알기에 정의롭게 행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비록 우리가 도덕률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결코 구원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간음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기 때문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요 8:11).

묵상: 윤리와 법 중 어떤 것에 의해 규제받는 것을 택할 것인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감정 표현의 불능’에서 ‘감정 표현의 유능’으로

“결혼 연차가 꽤 쌓인 부부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도저히 남편의 속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제게 무엇인가 서운한 듯 보여서 물으면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가도,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별말이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는 말이라도 해줘야 남편의 마음을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답답합니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부부의 감정 표현’이다. 부부 사이에 감정 표현이 소원해지면 결혼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 종종 “배우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푸념을 듣기도 한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배우자가 느끼는 감정을 듣고 공감하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는 전달되었지만,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부부 관계는 건조해질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감정 표현의 불능’이라고

한다. 감정 표현의 불능인 상태에서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을 분별하기 어렵다. 분노, 당황, 외로움, 행복, 즐거움, 기대 등의 감정을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 또한 어렵다. 특히 남성들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어렵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라도 수용 받는 긍정적인 경험이 부족한 성장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아내에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감정을 표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 외로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나약하다고 생각했다. 외로움은 의지로 이겨야 할 감정일 뿐이고, 그 감정을 표현하면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다. 누구에게도 쉽게 표현할 수 없었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정말 힘들게 표현했을 때 아내가 수용해주는 경험을 했다. 매우 축스러웠지만 따뜻한 경험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이 부부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해준다.

‘감정 표현의 불능’에서 ‘감정 표현의 유능’으로 바뀌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의사소통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감정에 대한 인식이 바뀔수록 감정을 소중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게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집중해서 관찰해보자.

둘째, 배우자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가 무엇을 경험하고 느끼는지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부부가 감정적으로 충분한 교감을 나누면 깊은 공감각이 생긴다. 예를 들어 “오늘 너무 힘들었어”, “잘 안 될까봐 걱정돼”, “무슨 일 날까봐 불안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외로워”, “혼자 있으니까 좀 우울해” 등 감정을 담담히 한번 표현해보자.

셋째,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긍정해주고, 수용해줘야 한다. 감정 표현이 어려운 것은 성장과정과 환경에서 충분히 수용되는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고 나눌 수 있도록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신 힘들었겠다”, “그래 불안하고 우울하겠다”라고 말하며 배우자가 말하는 감정을 그대로 반영해주면서 수용해주자.

넷째, ‘I-Message(나 전달법)’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I-Message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다.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 해?”라는 비난 대신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속상해요”라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I-Message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기에 배우자에 대한 공격, 비난, 조롱을 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
이 좋다> 저자)



코로나19, '이웃사랑'으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다윗공동체 연탄 나눔 봉사

올해 초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다윗공동체(이하 다윗공동체)의 새로운 리더십들이 세워지면서 첫 사역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중단되고,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다 연탄나눔이 생각났다. 다윗공동체가 사역을 진행했던 시기가 2월이라 연탄이 꼭 필요한 시기였다. 다윗공동체의 사역지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딸기원마을이었다.

딸기원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규모가 작은 곳이었다. 다른 마을에는 100가구 정도가 사는데 딸기원마을에는 12~13가구만 산다. 게다가 거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만 있는 곳이라 연탄을 나눠드리는 일이 더 필요했다. 규모가 작다 보니 봉사활동 하러 오는 곳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딸기원마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두신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적은 인원으로도 봉사할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딸기원마을이 적합했다.



다윗공동체가 지난 2월 딸기원마을 독거노인 9가정에 연탄 2천 장을 선물했다.

11명의 청년들이 딸기원마을에 모였다. 각자 지계에 연탄을 지고 한 가정 한 가정에 연탄을 놓아드렸다. 9가정에 연탄 2천 장을 전달했다. 집을 비우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얼굴을 모두 뵙지는 못했지만,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했다. 한 할머니께서 전화로 감사 인사를 건넸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었

습니다. 몸이 아픈데도 병원 가는 게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탄 배달도 어렵다고 해서 이번 겨울은 참 춥고 힘들겠구나 생각했는데 청년들이 직접 연탄을 들고 찾아와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청년들 덕분에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와줘서 너무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인사를 듣는데 참 부끄러웠다. 이 제것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이 죄송했다. 연탄 나눔 봉사를 하면서 연탄 가격을 처음 알았다. 연탄 한 장이 고작 800원이었다. 그 적은 돈이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돈의 가치가 달리 느껴졌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이웃들을 더욱 살피고, 도울 수 있는 사역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다윗공동체가 실시할 올해의 사역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다.

다윗공동체는 올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기로 했다. 순별로 장애인 복지관 봉사활동, 도시락 배달, 독거노인 집안일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 더 많은 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14개 순을 조직했다. 한 순에 청년 4명 정도씩 배치했다. 적은 인원이지만 그만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맞춰 꼭 필요한 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웃들에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이 다윗공동체 청년들의 목표다. 다윗공동체 청년들 모두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 윤석무 형제(다윗공동체)



코로나19, '말씀'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Why Muslim?'

우리 가정은 남편의 발령으로 곧 터키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생활방식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터키로 이주하게 되면서 마음이 몹시 분주했다.

순장님께서는 내게 온라인 'Why Muslim?' 강의를 추천해 주셨다. 남편과 함께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사실 'Why Muslim?' 강의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신청했다.

그동안 이슬람을 그다지 알고 싶지 않았다. 상관하고 싶지 않은 공포와 불편함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교도들을 하나로 강하게 묶어 붙잡고 있는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더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싶었다. 한국에서는 이슬람들을 쉽게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었다.

온라인 'Why Muslim?'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슬람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Why Muslim?' 강의에서는 이슬람교의 역사와 배경, 이슬람교의 교리적 특징, 기독교와의 차이, 이슬람 전도, 한국 이슬람 사역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다.

한 주 한 주 강의를 들으면서 이슬람교의 큰



하나연 성도(송파A공동체는 온라인 'Why Muslim?' 강의를 듣고 무슬림에 대한 비전이 생겼다.

틀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슬람의 삶과 문화가 어떤 것인지, 이슬람교가 얼마나 강력하게 이슬람교도들을 사로잡고 있는지, 이슬람교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앞으로 터키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할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될 것 같다.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얻었다. 사랑이 흘러

가는 삶으로 이슬람들과 만나고 교제해야겠다는 것이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도한다.

이슬람교는 정말 견고한 성 같다는 생각이 강의 내내 들었다. 수많은 사람이 이슬람교를 참 진리로 생각하고 따르고 있다. 그러나 매우 강력하지만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것은 아니라

는 생각이 들었다.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종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동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저기에서 이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슬람교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야 한다.

온라인 'Why Muslim?' 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작은 퍼즐 조각으로 초대하시는 것 같았다. 두려움을 넘어서 소망을 품고 이슬람들에게 한 걸음씩 다가가는 준비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더욱 어렵다. 엄청난 무지에서는 깨어났지만, 주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택하셔서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보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편함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나와 우리 가정의 삶을 통해 귀한 복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 하나연 성도(송파A공동체)

작은 퍼즐 조각으로 초대

명화로 읽는 성경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윌리엄 블레이크의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 욕’(1825년)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모두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까요? 가족들 모두 건강하고 사업도 번성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보장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대중대중 살아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용조 목사 생전 설교 중 한 대목이다. 당시 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대한민국 성직자 중에서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이토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욕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우스 땅에 욕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욥 1:1).

욕은 ‘고난 받는 의인’의 대명사이다. 왜 신실한 주님의 사람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욕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욥 7:15).

욕은 절망 속에서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절규한다. 의인으로 칭송받던 신실한 욕이 흔들리는 모습은 그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대학 시절 폐결핵을 앓기도 했던 하용조 목사는 평소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신부전증으로 일주일 네 번씩이나 투석을 했다. 간암으로 7차례에 걸쳐서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그는 한국 복음주의 운동을 선도했던 한국 기독교의 큰 별이었다.

“아픔은 축복입니다. 고통은 내게 깨달음을 줍니다. 밤이 낮을 알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형교회를 개척했으면서도 세속적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뚜벅뚜벅 복음화의 외길만 걸었던 하용조 목사. 그는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욕기를 떠올리며 영적 충만을 경험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욕은 하용조 목사의 동일시(identification) 대상이자 영적인 모델이었을 것이다. 그날 하용조 목사의 질문이 바로 욕기의 주제이기도 하다.

욕의 눈물과 시선...

오늘 우리가 욕기와 함께 묵상할 그림은 영



윌리엄 블레이크가 그린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 욕’(1825).

국의 시인이자 화가 윌리엄 블레이크(1757~1827)의 작품이다. 미술사학자 E. H. 곰브리치에 의하면 윌리엄 블레이크는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에 사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르네상스 이래로 공인된 전통적인 규범을 의식적으로 포기한 최초의 화가로 평가받는다. 그런 까닭에 그의 그림은 다소 모험적이고 환상적이다. 그는 말년에 단테의 ‘신곡’과 성경의 ‘욥기’를 소재로 한 연작을 발표한다. 오늘 소개하는 ‘친구들의 비난을 받는 욕’(1825년)도 이 시리즈 중 하나이다.

욕기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자. 욕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공증을 두 번이나 받은 의인이다(욥 1:8, 2:3). 그런 욕이 엄청난 재앙에 직면한다. 자신 소유의 소와 양, 나귀와 낙타 등을 모두 잃고 휘하에서 일하던 일꾼과 목동들이 죽임을 당한다. 태풍으로 아들과 딸들이 죽고 욕 자신도 악성 피부병에 걸린다.

욕에게 닥친 시련은 그를 만신창이(滿身瘡痍)로 만들었다. 재산과 건강과 자식까지 모두 잃은 욕은 몸과 마음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었다. 초주검 상태이다. 늘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사람을 더욱 힘들게 하는 법이다. 믿었던 아내의 악담은 비수가 되어 욕의 심장을 찌른다.

“그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잔난 충성심이나 붙들고 있대니!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욥 2:9).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림에서 가운데가 욕이고 왼쪽에 있는 여인이 욕의 아내이다. 파골이 상점했을 욕이 다소 건강하게 그려졌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우러러 장탄식하는 욕의 비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욕의 아내는 남편을 응시하고 있다. 이 상황

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당혹한 눈빛이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 세 명의 친구들이 욕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욕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욕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마음이 없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자네가 받고 있는 고통은 자네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네. 그러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들의 태도는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위로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다. 마땅히 친구가 어디가 아픈 지부터 들어줘야 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알아줘야 한다. 친구의 고통 자체에 집중하고 공감하려는 자세가 치료하는 자, 위로하는 자의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다. 욕의 잘못을 찾아내어 꼭 집어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위로하기보다는 가르치고 분석하는 눈빛으로 손가락질 해대는 세 친구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다.

욕은 아내나 옆의 친구들에게 아랑곳없다. 그의 시선은 하늘을 향한다. 욕의 눈물과 시선이 이 그림의 핵심이다. 욕은 친구들의 지적질에 어처구니가 없다. 욕은 대놓고 친구들을 ‘재난을 주는 위로자’, ‘형편없는 위로자’라고 반발한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 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슬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의가 무엇인가?”(욥 16:2-3).

성서학자 송민원 교수는 현대인의 시각으로 욕기를 읽지 말라고 단언한다.

“원죄론이나 이신칭의, 행위와 율법의 이분

법과 같은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또는 구약시대의 독자들에게는 낯선 틀로는 욕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신학적 관점은 반성적 지혜가 제기하는 ‘의로운 자의 고난’이라는 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욕기 해설서들이 대개 실패하는 이유가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일 것이다. 당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욕의 욕소에 신학적 논거를 들어 비판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서 홀연히 나타나서 욕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보여 주신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말해 보아라”(욥 38:4).

“... 내가 너를 지은 것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욥 40:15).

욕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찬탄하며 무릎을 꿇는다.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욥 42:2).

욕인가? 아내인가? 세 친구인가?

응심리학자인 안셀름 그윈은 고통에 빠진다고 반드시 자신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욕기는 우리가 호소하고 절규하고 저항해도 된다고 허락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공격적 태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의 신비로 이끌려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만 침묵하고 경배하며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불가해한 사랑 속에서 우리의 불가해한 고통이 변화합니다.”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욥 1:9)라는 사탄의 질문에 대한 욕의 대답은 이렇다.

“...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욥 1:21).

하용조 목사는 아니 욕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다.

“당신은 욕처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거두어 가실 때에도 과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가?”

윌리엄 블레이크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친구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럴싸한 이론적 해석에 빠져 친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먼저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욕인가, 아내인가, 아니면 세 친구 중의 한 사람인가?”

“NGO 더멋진세상은 늘 소망을 준다”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주민 치료비 지원

NGO 더멋진세상이 부르키나파소 국생마을 주민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허벅지뼈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치료비가 없어서 3개월째 방치되어 있던 부카리(80세) 어르신과 다리가 골절되었는데도 1년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브리바 형제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브리바 형제는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NGO 더멋진세상은 늘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했다.

NGO 더멋진세상 부르키나파소 현지 사역자는 “NGO 더멋진세상의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덕분에 이



NGO 더멋진세상의 도움으로 치료 중인 부카리 어르신.

슬람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매주 80여 명의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NGO 더멋진세상과 선교지 영혼들을

잊지 않고 중보기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문의: 02-2271-224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

4월 2일 오전 10시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를 4월 2일(금) 오전 10시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09-3번지에서 드린다.

영종도 온누리교회 착공감사예배는 정진호 장로 대표기도, 홍정길 목사 말씀, 이재훈 담임목사 축도, 장규환 장로 경과보고, 전영한 회장 축사, 유형 장로의 건축진행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영종도 온누리교회는 대지면적 2,020.80㎡(611평), 연면적 3,222.86㎡(975평)로 5층(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다. 교회 카페, 소예배실, 다목적실, 대예배실, 사무실, 주차장, 기계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 개설

4월 4일까지 헌혈 이벤트 실시

더 많은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www.blooddonation.co.kr)가 개설됐다. 아래의 큐알코드로도 접속할 수 있다.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홈페이지에서 4월 4일까지 헌혈이벤트를

실시한다. 헌혈 참여 인증을 하거나 참가 소감을 남기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헌혈이벤트는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과 별도로 진행된다.

/ 홍하영 기자



한국어선교 교사 모집

한국어선교학교 수료자, 한국어교원 자격증 소지자

한국어선교학교에서 4월 23일(금)까지 한국어선교 교사를 모집한다. 한국어선교 교사로 선발되면 한국어를 몰라서 취업과 한국 생활 전반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난민과 이주민에게 3개월 동안 주 1회 온라인(Zoo

m)으로 일대일 한국어 교육을 하게 된다. 지원자격은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으로 한국어선교학교(1기~6기)를 수료했거나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성도다(관련기사 14면).

문의: 010-8948-1215

3월 세례자

■서빙고	심재원 신동희 노미현 권예은 181211 안지후 200330 권주용 유선경 안서무엘정미정 김라희 190823 오제아 190405 김현수 박주현 오선용 김소연 김윤하 190713 오주아 190710 김민섭 한지혜 오승환 김지연 김은준 181223 이다정 191017 김한샘 송나래 이창한 정 경 김이든 200621 정 선 190717 김상현 선고는 정길수 오유숙 김이완 190402 정이현 191004 김상현 선고는 정준용 임이지 나은솔 180826 정 진 190717 나태열 석아름 정길수 오유숙 노지환 190426 차주희 190327 노재현 최윤영 차신웅 이현선 노하람 190730 페드첸코 마리아 노현우 정시는 180904 배사랑 181204 박주아 190111 페드첸코세르게이 배성국 김미경 박상훈 강수경 노미현 배혜성 191023 배상오 200715 페드첸코 안나 배성원 강혜진 배용한 어진주 180904 변예린 190304 심세윤 190906 페드첸코세르게이 변종현 최경미	석다엘 190802 조하울 190124 석상백 지수빈 조영민 김은정 양이안 201104 최한별 190506 양우진 강단비 최우진 배은영 이 담 191008 이선빈 임 윤 <대청> 이서준 180226 ■여호수아 김지원 941022 이혜원 심민정 손희원 980724 이세은 190831 윤수지 890922 이병규 배민영 이병재 860118 이주는 200228 김문형 920909 이창석 김희진 변한나 970121 이주혜 200228 ■허브 정동희 961104 장지안 180817 장소희 200907 장영민 조주현 홍예진 990613 장충식 조이정 입교 고윤수 020315 정진하 181204 정경모 이지연 황예진 020115 조인우 191121 조성울 윤선민 조하연 190124 조영민 김은정
------	---	---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4월 17일부터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4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어린이 부모 하트스쿨에서는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할까?’,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일까?’, ‘감정 알기 및 표현하기’ 등을 주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더욱 친밀해지고 건강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 과정이다. 참가 신청은 4월 24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2647-5435

젊은부부학교 51기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5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성경적 결혼관’, ‘피플퍼즐’, ‘자기 예로의 여행’, ‘남녀차이와 부부대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4주차에는 수료식이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4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10만 원이다. 3월 30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문의: 010-6685-0812

Pray for ★

하루 30초만이라도!

저는 미얀마의 옛수도 양곤에서 600km 가량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오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작은 마을이라 일상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시위가 한창인 양곤은 다릅니다. 양곤에 군병력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가 마을 단위의 산발적인 시위로 변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를 막기 위해 미얀마 군부에서는 인터넷을 차단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시위대도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민족들의 군대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전으로 번져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관련 소식들은 뉴스를 통해 접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루 30초만이라도 미얀마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요.

/ 이상오 선교사(미얀마)

헬로맘 수강생 모집

4월 16일부터 매주 금 오전 10시 온라인

‘헬로맘-성경 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이하 헬로맘)’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에게 브런치 쿠폰이 제공된다. 헬로맘은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아내의 정체

성, 부부연합의 비밀, 아이 양육 방법 등을 배운다. ‘생명의 여인 한나’, ‘창조적으로 섬긴 수넬 여인’, ‘최고의 것을 줄 수 있었던 행복한 여인 마리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참가 신청은 4월 2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문의: 010-2716-2736

4월 큐티스쿨 참가자 모집

4월 큐티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큐티스쿨에서는 ‘큐티의 정의와 목적’, ‘큐티의 모델과 방법’, ‘큐티의

순서와 방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큐티스쿨 참가신청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구분	스쿨이름	일정
서빙고	강서 고법석 목사반	4월 15일~5월 6일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여성지역 김은하 전도사반	4월 6일~4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양재	노치형 목사반	4월 13일~5월 4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서초A 양성민 목사반	4월 15일~5월 6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천	여성지역	4월 6일~4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대청 조병홍 목사반	4월 10일~5월 1일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인천	주일오후 양재경 목사반	4월 11일~5월 2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주일오후 김미정 목사반	4월 11일~5월 2일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양지	주일오후 도육환 목사반	4월 4일~4월 25일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세례 간증



/ 오유숙 성도(영등포구로공동체)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신다!

나는 35살 겨울에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했다. 내게 결혼은 정말 큰 결심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에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만족하며 6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부담되고 싫은 마음이 있었다. 어느 날 문득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10년 정도 지나면 지루하고 재미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인 생각이었는데 강렬했다. 바로 다음 날 난임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첫 인공수정에서 아이가 찾아왔다. 그 아이는 잘 크지 못하고 유산되었다. 두 번째 인공수정도 성공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아기가 한 명이 아닌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다. 쌍둥이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다. 얼마 후 엄청난 입덧이 나를 찾아왔다.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이틀째 되는 날 나는 극심한 복통으로 병원이 떠나려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 늦은 밤 응급수술을 했다. 난소가 꼬여 생긴 통증이었는데 집에 있다가 이 고통을 겪었다면 어땠을지 아찔했다. 입덧으로 병원에 입원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수

술하고 나서 매일 주사를 맞고 약을 투여하다 보니 아기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걱정됐다. 눈만 뜨면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미안했다. 그렇게 두어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가 퇴원했다. 이제 조금 괜찮겠다 싶었는데 일주일 즈음 지나 새벽에 하혈을 했다. 피가 너무 많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울면서 떨고 있는 나를 남편이 일으켜 응급실로 달려갔다. 검사결과 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하혈의 이유를 알 수 없고,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좋은 상황이 아니니 지속적으로 관찰해보자는 말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됐다. 우리 아기들의 생명은 엄마인 나도, 의사도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20개월이 된 쌍둥이 자매는 너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부모인 우리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실 것을 믿게 된다.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라도록 말씀을 읽어주고, 찬양을 불러주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한다.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김나신 성도(헬로맘스쿨 팀장)

하나님 가정 세우는 사역자

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아내로서, 엄마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강의나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그래서 헬로맘스쿨 강의를 참 좋았다. 배우자가 아닌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감미향 목사님의 강의가 정말 좋았다. 말씀이 귀에 쏙쏙 박히고 마음밭에 심겨졌다. 나뿐만 아니라 강의를 함께 듣는 자매님들의 마음을 울렸다.

헬로맘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강의를 듣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강의를 들었더라면 지금보다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았다.

그런데 셋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준비된 엄마로 아이에게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쁨이 넘쳤다. 셋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을 때 나는 헬로맘스쿨을 돕는 스태프로 섬기고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다. 내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강의를 열리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Zoom)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태프 큐티모임을 가졌다. 그

덕분에 혼자라면 막막했을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워낼 수 있게 된 것도, 코로나19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잘 이겨나갈 수 있던 것도 헬로맘스쿨이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게 헬로맘스쿨 팀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맡겨 주셨다. 셋째가 아직 어리고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셨다.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다.

이제 곧 헬로맘스쿨 강의를 다시 시작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육아에 지친 아기 엄마들, 예비 신부, 임신을 준비 중인 자매님들이 위로 받고 힘을 얻어가는 곳이 되리라 믿는다. 온라인(Zoom)으로 강의를 진행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해외에 있는 엄마들도 신청하고 있다. 코로나19도 우리의 모임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함께 예배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동참하는 사역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더 많은 자매님들이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홍은정 성도(가정사역공동체)

그제야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젊은부부학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4주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망설여졌다. 감정을 억누르며 참고 지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젊은부부학교에 신청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그래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참석했다. 첫 주 강사님께서 남편과 마주보고 하셨을 때 결혼 12년 동안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조차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걱정됐다.

2주차에는 이재진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버티며, 남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 나를 발견했다. 내가 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했더니 그제야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남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다. 나만 회개했을 뿐인데 남편의 눈 속에 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이 고마웠다. 그동안 속상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2년째 앓고 있던 편두통까지 좋아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지금까지 다른 부부들을 보면서 우리 부부와 비교했다. 다른 부부들처럼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다. 젊은부부학교 강의를 들으며 좋은 결혼생활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문제들이 되풀이되겠지만 남편의 눈 속에 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이다. 앞으로의 날도 사랑으로 이끌어주실 것을 믿는다. 늘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부부가 되기를 기도한다.

처음에는 두려움만 가득했는데 벌써 4주가 지났다. 4주 동안 성령님이 부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왔다. 모든 시간이 너무 귀했다. 태초부터 나를 택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한다. 아낌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부부를 섬겨주신 강사님들, 스태프들, 조장님께 감사드리고 싶다. 이 귀하고 값진 시간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다. 최고의 시간을 선물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수료 간증



/ 최용일 집사(동대문중앙공동체)

그 비유와 기적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켰다

신원석 목사님께서 비대면으로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을 강의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 순에 꼭 필요한 강의라는 생각을 했다. 안수집사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직분이 있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에게도 좋은 강의라고 생각했다. 나는 순원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라며 모든 순원이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듣고 순예배에서 나누자고 제안했다.

강의가 시작되고 몇 주가 흐르면서 갈등과 회의가 찾아왔다. 교만했다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다. 혼돈의 시간 속에서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음만 앞선 약한 틈을 마귀가 정확히 찔고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 바쁨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것을 주님이 주신 행복이라고 믿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날부터 출퇴근길 차에서 동영상을 틀어놓고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들었다. 다음 강의는 언제쯤 나올지 학수고대하기에 이르렀다. 그제서야 정신이 들

었다.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조금씩 무거웠던 나의 마음이 편해졌다.

가스펠프로젝트를 통해서 나는 한 단계 성숙한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고 있다.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예배에 참석해서 삶에서 경험하는 비유와 기적을 은혜롭게 나누고 있다. 중보기도도 뜨거워졌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많은 기적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셨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물 위를 걸으시며, 중풍 병자를 고치셨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보여 주셨다. 그 비유와 기적이 나의 믿음을 회복시켰다.

선교 묵상

한 알의 씨앗이 된 문준경 전도사



박보혈 선교사
(남아시아국)

순교자의 삶은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 그 위로 줄기가 자라고, 그 줄기가 큰 나무로 성장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씨앗이 뿌려지면 그 일대가 큰 숲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은 한 순교자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한 지역을 복음화 시키신다. 엄청난 확장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통해 큰 나무가 자라게 하시고,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씨를 뿌려서 큰 숲을 이뤄내셨다.

문준경 전도사는 1891년 전남 무안군 임태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부친의 고루한 생각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나, 그녀는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다. 1908년 17세에 신안군의 증도에 거주하는 부잣집 막내아들 정근택에게 시집을 갔다. 이 부부는 자녀가 없이 10년 동안 생활했다. 남편 정근택은 어업분야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남편이 수시로 외지에 나가 지냈기에 그녀는 홀로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다. 그로 인해 동네에 신흥 초부터 그녀가 외지에 첩을 얻어 사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소문이 났다. 그녀의 친척들조차 애인이 있던 남편에게 신흥 첫날밤부터 소박맞았다고 기억할 정도였다. 이 오해는 근래 들어서야 문준경 전도사의 증손자인 한 목회자에 의해 풀렸다.

시아버지가 문준경 전도사에게 한글을 가르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3년상을 치렀고, 가문에서 효부로 인정받았다. 문준

경 전도사가 친족 공동체성이 아주 강한 신안군의 섬들을 돌면서 선교사역을 잘할 수 있던 배경에는 남편과 시댁의 인정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22년 문준경 전도사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남편에게 첩을 얻을 것을 권했다. 남편은 소복진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이듬해 둘째 부인이 난산 끝에 첫째 딸을 낳았다. 문준경 전도사가 산모와 아기를 지극정성으로 돌봐 사경에 있던 아기를 살려낸다. 그때부터 남편은 두 집 살림할 수밖에 없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목포 죽교동에 나가 셋방을 얻어서 생활했다. 남편은 이웃 동네인 북교동에 집을 따로 마련해서 자녀를 키웠다. 목포에서 삶바느질하며 살던 문준경 전도사는 1927년 3월 한 전도부인의 소개로 목포 성결교회에 나갔다. 이듬해 4월 세례를 받았다. 열심히 전도에 힘쓰던 문준경 전도사는 1932년 5월 정성초 목사의 추천으로 성결교단의 경성성경학원에 응시했는데 기혼 여성의 입학할 불허하는 학칙 때문에 청강생으로 입학했다. 당시 문준경 전도사는 성경학원 입학을 위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한다. 호적상 문준경 전도사는 이혼한 적이 없었고 애초에 남편이 둘째 부인과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어서 7명의 아이들 모두 남편과 문준경 전도사의 자녀로 올라있었다. 남편은 입학금을 주면서 학업을 후원했다. 문준경 전도사가 서울에서 생활하는 비용도 주었다. 문준경 전도사가 신안군의 섬들을 돌면서 행한 선교사역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녀는 본부인 자리를 둘째 부인에게 내주고 1932년부터 홀로 살았다. 증손자 정원영 목사에 의하면 아이를 낳지 못한 아픔이 있던 문준경 전도사는 자신의 고난이 복을 위해 하나님이 조성하신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계속).

권사칼럼

“천만 원에 저 영혼 사게 해주세요!”



황재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일이 생기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 언니를 전도한 이야기다. 나는 7남매 중에서 셋째로 태어났다. 내 위로 언니가 한 명 있는데 7남매 중에서 자매는 언니와 나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언니는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가기 일쑤였다. 종교에서 오는 거리감이 깊어지고, 대화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는 ‘이 좋은 예수님을 우리 언니도 만났으면 좋을텐데’라는 생각으로 매일 기도했다. 교회에서 전도행사를 할 때마다 전도대상자로 언니 이름을 써냈다.

어느 날 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1999년 IMF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막내아들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전화였다. 당장 천만 원이 없으면 막내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면 돈을 부탁했다. 그러면서 내 귀가 번쩍 뜨일 말을 덧붙였다.

“천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몇 십 년을 그렇게 사정해도 안 들어주더니 급하긴 급했으나.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찰만도 한데 그때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단번에 “언니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당차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 천만 원에 저 영혼 사게 해주세요!”

사실 나는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었다. 그 흔한 게 한 번 안 들어보고 지냈다. 당장 천만 원을 구할 곳이 전혀 없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

다. 초등학교 동창이 생각났다. 조금 여유가 있는 친구였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천만 원만 빌려 달라 했더니 처음에는 사기를 당한 줄 알고 혼쭐을 냈다.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한 번만 믿고 도와달라 부탁했다. 교회 권사였던 그 친구는 자신의 여동생에게까지 돈을 빌려 그 큰돈을 보내줬다. 언니에게 돈을 보내고 교회에 꼭 가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그날 이후 언니의 둘째 아들이 매주 언니를 모시고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을 믿고 있던 둘째 조카도 언니를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참 기뻐던 모양이다. 언니가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주 대전에서부터 옥천까지 1년을 모시고 다녔다.

천만 원을 갚아가지도 웃음 나오는 일화가 있다. 사실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둘째 달까지 이자를 내가 냈다. 한 달 이자를 20만 원씩 줘야했는데 나도 생활비를 받아서 쓰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께 또 기도했다.

“천만 원에 사기로 하긴 했는데 저 돈 없는 거 아니잖아요?”

언니 영혼을 천만 원에 사겠다고 당차게 기도할 땐 언제고 껄뽀 할만도 한데 하나님은 또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다음 달부터 막내조카가 이자를 보내왔다. 일 년 정도 지나서 빌린 돈을 갚았다. 두 달 치 이자는 아직도 내 마음에 묻어두고 있다. 하나님께 천만 원으로 사졌다고 약속했는데 40만 원으로 끝났으니 이 얼마나 큰 이득인가! 언니는 그 이후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 명예권사가 된 언니는 가족들을 전도하고, 새벽기도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다. 교직 생활을 하던 언니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다. ‘할머니 선생님’으로 불리며 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다. 성가대는 아직도 섬기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라고 고백했다. 이제는 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신앙에세이



김윤식 목사
(W청년부)

사람들은 누구나 소통에 대한 욕구가 있다. 인류와 문명의 역사는 곧 소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인간은 소통하는 존재가 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다. 소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본래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과 소통의 관계로 존재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 사용하신 방법이 다름 아닌 말씀이었다. 하나님이 대상을 부르시고 명령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생겨났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빛이다. 인간이 만든 여러 신화에

서는 대체로 가장 먼저 땅이나 하늘, 천체로부터 세계가 시작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지어진 것들이 시각적인 형태와 크기, 색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다음날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에 대기가 채워지게 하셨다. 공기의 진동을 통해 소리가 전해지는 환경을 만드셨다.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에게 눈과 귀와 발성 기관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소통기관과 감각기관, 자연환경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방향을 함축하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창 1:27)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흡사하다. 하나님이

대상을 부르시며 창조하셨다면, 아담은 대상을 불러서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통의 능력을 주셨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사 43:21).

찬양은 대상을 드높이는 행위이다.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죄로 막힌 하나님과의 장애물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지금도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소통의 기술과 미디어가 발전했다. 그것이 말씀 전파를 가속화시켰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더 가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 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 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위해 저 하늘에 다 장막을 치셨습니다”(시 19:1-4),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뜻을 전파하신다. 하나님은 소통의 시작이고, 소통의 주인이다.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 변화된 미디어 환경은 소통의 방식에도 변화와 확장을 일으켰다. 말씀을 읽고, 쓰고, 말하고, 전달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좋은 콘텐츠 생산하고, 보고, 반응하고, 공유하는 것으로 사역이 확장될 수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소수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비하는 다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한다. 초연결시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세상과 주님을 가깝게 만들기를 소망한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주 안에서 자랑하십시오

그들이 범위를 넘어서서 혼란하게 하고, 훼방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분량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거짓된 일꾼들의 기회를 끊기 위해서

둘째, 거짓된 일꾼들의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이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여러분은 잘도 용납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위대한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4~5절).

이것은 책망입니다.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끓는 열심이 느껴집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고린도후서 11장 10~12절에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는 한 내 이 자랑은 아가야 여러 지방에서 중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자랑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의 기회를 끊어 버리려는 것입니다”(10~12절).

사탄은 끊임없이 기회를 엿봅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대화 속에 거짓이 틈탈 기회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바꿨습니다. 단어를 몇 개 빼거나 덧붙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식 중에서 과장되거나 축소되고, 왜곡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해 듣는 말이 완전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가 참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거짓을 퍼뜨리는 데 도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닌 줄 알면서도 말을 바꿔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사회,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바울이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때로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 해야 합니다. 정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야 합니다. 바울이 거짓된 이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나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짓으로 소식을 전하고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의 기회를 끊어버리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다

셋째,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된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거짓된 사람들은 언제나 잘난 척만 합니다. 자신이 위대하다만 말합니다. 탁월함만 자랑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만나는 사람 중에서 자기 자랑, 세상적인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기도제목으로 나누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고후 11:30).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으로 대결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자랑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

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면 그냥 맞는 것입니다. 돌이 갑자기 부서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신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적 신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자신의 체험도 고백합니다. “다메섹에서 왕의 관리가 자신을 체포하려 할 때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서로 나누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무엇을 자랑하는지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입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이 연약한 줄 알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야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믿음과 헌신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기만을 소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원했던 바울의
그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사역칼럼



이성우 집사
(양재 2000 선교본부
한국어선교실행팀장)

2016년 9월 24일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선교관에서 ‘제1기 한국어선교학교 개교식’이 열렸다. 1기부터 2기까지 수강생이 모두 모집되는 은혜도 있었다. 지난해 12월 한국어선교학교 제6기까지 32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지난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교육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하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온라인 줌(Zoom)으로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고 24명의 수료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 수강생 중 한 분이 터키 선교사님들의 요청과 주선으로 현지인과 비대면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우리를 전율하게 했다. 한국어선교학교가 국경, 장소, 시간을 뛰어넘어 총체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어선교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

운 상황이 계속될 거로 보고 비대면 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결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의를 아셨는지 이주민센터, 터키 현지 및 난민센터 등에서 한국어 교사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체 없이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아프리카 E국 난민이 입국한 지 15년 되었는데 한국어를 못 해서 해고당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적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까지 만져줄 책임자가 누구인지 생각을 거듭했다. 한국어선교학교 1기부터 6기까지 수료자 명단을 보면서 기도했다. 그때 2000 선교 장로님 한 분이 6기 수료생인 한 선교사님이 실행팀 봉사를 해주기로 했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그 선교사님께 조심스럽게 그 난민의 딱한 사정을 말씀드리고 교육을 부탁드렸다. 선교사님께서 응해주셨다.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다.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외국인 신입생들을 위한 ‘SURVIVAL KOREAN 특강’

한국어선교와 땅끝 선교사

요청도 있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전화통화도 하고, 길을 묻고 자기소개도 할 수 있도록 2시간 동안 재미있는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풍부한 한국어 실력과 교육현장 경험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어선교학교 321명의 수료생 명단을 보면서 누구를 추천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6기 한국어선교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두 분의 강사님이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온누리교회 성도인 A교수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너무 반가워하셨다. 그런데 그 시간에 선약이 있다며 매우 아쉬워하셨다. 뒤이어 온누리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L교수님께 전화를 걸어 특강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강의를 부탁드렸다. 흔쾌히 받아 주셨다. 각국에 온라인(Zoom)으로 중계된 L교수님 강의는 성공적이었다. 여기저기서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한국어 스타강사의 탄생이 예감되었다. ‘SURVIVAL KOREAN 특강’을 발전시켜서 강사들을 무장시켜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국어선교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5월부터 온라인 강의와 6주 동안 실습을 진행한다. 한

국어선교학교 수료자들과 온누리교회 성도 중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에게 이 주민이나 난민을 온라인으로 교육시키는 귀한 일을 맡기려 한다. 5분전도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 또한 알게 하려 한다. 그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땅끝 선교사가 되기 때문이다. 노규석 목사님(안산M센터)이 “현지 선교가 막힌 상황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이라고 하셨다. 또한 “세계에 한류를 유행하게 하셔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현지인들이 줄을 선다”는 말씀이 우리의 사명감을 불태우게 했다.

조선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은 한글이 쉬우면서도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사용해서 한글을 살려냈다. 백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 그 덕분에 이 땅에 복음을 꽃피우고, 놀라운 경제발전이라는 기적도 얻었다. 모두 성경의 힘이다. 한국어선교에 동참하면 우리 모두 땅끝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어선교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중보기도 동참을 부탁한다. 문의: 010-8948-1215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마루 평천로 589
- **수원 김소리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항로 2길 61 2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6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언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앨버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상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克蘭드 우현목 목사** 64-21-0810-3132 41 Centorian Dr, Mairangi, Auckland, New Zealand

■일본

•동경

-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 Chuo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충동

•아부다비

- **김태완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베트남

-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북경

-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G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6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aishan zhongdianzhan)
- **상해 김관수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ilu 1243hao yongweishangwudashà 3lou 388shi
- **청두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김소리
- 김상수 이해영 신동식 서경남
- 이준호 도육환

◆부목사(전임)

- 김미향 강지영 권오환
- 김용갑 김혜영 권오환
- 김미정 김혜영 권오환
- 김영배 김요성 권오환
- 김재식 김재성 권오환
- 김현실 김종훈 권오환
- 노희태 김현실 권오환
- 박성호 박성호 권오환
- 박성천 박성천 권오환
- 변대섭 서원철 권오환
- 신기섭 신원철 권오환
- 앤드루김 앤드루김 권오환
- 유승준 유승준 권오환
- 이기복 이기복 권오환
- 이비오 이비오 권오환
- 이유재 이유재 권오환
- 이한규 이한규 권오환
- 정상훈 정상훈 권오환
- 조준호 조준호 권오환
- 지대근 지대근 권오환
- 최원준 최원준 권오환
- 한홍희 한홍희 권오환

◆전도사(전임)

- 김수경 김수경 권오환
- 김재원 김재원 권오환
- 최성규 최성규 권오환
- 하스데반 하스데반 권오환
- 하스데반 하스데반 권오환

◆경배와찬양 목회자

- 하스데반 하스데반 권오환
- 하스데반 하스데반 권오환

◆협동목사

- 하스데반 하스데반 권오환
- 하스데반 하스데반 권오환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부목사(파트)

- 김세현 김세현 권오환
- 권수진 권수진 권오환
- 도병도 도병도 권오환
- 박근명 박근명 권오환
- 원래원 원래원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임선아 임선아 권오환
- 최정현 최정현 권오환

◆전도사(파트)

- 김근희 김근희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진희 김진희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병철 김태주 뉴이엘은

- 김태주 김태주 권오환
- 뉴이엘은 뉴이엘은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김석수 김성수 김성수

- 김석수 김석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 김성수 김성수 권오환

◆부목사(전임)

- 김도일 김도일 권오환
- 김은하 김은하 권오환
- 김태환 김태환 권오환
- 박소만 박소만 권오환
- 박태훈 박태훈 권오환
- 배명진 배명진 권오환
- 송수영 송수영 권오환
- 오태경 오태경 권오환
- 윤신혜 윤신혜 권오환
- 이시영 이시영 권오환
- 이진아 이진아 권오환
- 이태호 이태호 권오환
- 임광민 임광민 권오환
- 정요한 정요한 권오환
- 정준호 정준호 권오환
- 최하늘 최하늘 권오환
- 황귀희 황귀희 권오환

◆사역장로

- 강인지 강인지 권오환
- 권도원 권도원 권오환
- 권철중 권철중 권오환
- 김명중 김명중 권오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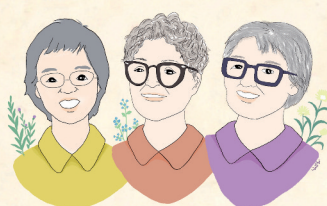
소천

3/17(수) 서초C 조남해 성도 부

CGNTV

개국특집다큐

کم백홈



선교사와 함께 씬 없이 달려온 CGNTV,
각기 다른 선교지에서 지내온 은퇴 선교사 3인과 함께
지난 은혜를 돌아보며 선교사 그 후의 삶을 나눕니다.

4월 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방송

내레이션 배우 신세경

顧恩堂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후원계좌
A R S
후원문의

[하나은행 573-910002-67804]
060-705-0000
02-796-2243